


칭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VOL. **41**
2020 / 05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PT. Asia Chemical Industry**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

ACI 건축 페인트가 만듭니다

바닥 에폭시 / 지붕 페인트 / 벽 페인트 / 보호 페인트 / 시공 가능



조도진 이사
0822-3067-5573
jodojin@aci-yuwon-biz.com

김택용 차장
081-1978-1066
kimty81@aci-yuwon-biz.com

김재옥 과장
0812-8384-8882
kimjaeok@aci-yuwon-biz.com

윤제웅 사원
0822-1348-8826
jeungyun@aci-yuwon-biz.com

인니 1분기 경제 성장률 2.97%...2001년 이후 최저 "2분기 경제 타격 더 클 것"



▲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 빌딩 입구. 빨간 동그라미 부분은 체온검사기이고 옆에 파란색 기계는 폭발물감지기이다. 2020.5.5 [사진: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기별 경제성장률로는 2001년 이후 최저치라고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발표했다.

5일 안파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어떤 나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면역이 없다"며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바이러스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작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5.07%였다. 인도네시아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분기별 성장률로 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여파로 4분기에 4.97%로 둔화하던데 올해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수아리안토 통계청장은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위축시켰다"며 "각국의 봉쇄 조치로 인도네시아의 무역 활동도 차질이 생겼다. 석유와 가스, 광물 등 모든 지표가 코로

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황을 단순히 예년과 비교할 수 없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세계 경

제와 사회 상황을 불확실성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의 경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3월 중순부터 자카르타 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 준 봉쇄 조치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이 발령됐고, 지난달 24일 라마단 시작과 동시에 육로·해상·항공 여행을 대부분 막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KAI · 대우조선해양,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PCR 1만회 분량 인니 국방부에... "방위산업 최대 협력국"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은 29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1만회 분량을 전달했다.

KAI 등은 정확도 95% 이상의 한국산 유전자증폭 검사(PCR) 키트를 마련했고,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무료로 수송했다.

KAI와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는 KT-1B, T-50i 등 국산 항공기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의 최대 협력국"이기에 인도주



▲ KAI · 대우조선해양,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연합뉴스]

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KT-1B는 우리 공군의 기본 훈련기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이고, T-50i도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KF-X/IF-X)도 공동개발하고 있으나, 분담금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KAI 안현호 사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현지 코로나19 대응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날 오전 전달식은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열렸다.

PCR 키트는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가 인도네시아 국방 사무차관 야구스 중장에게 대표로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대사관 국방무관인 정연수 해군 대령과 마성민 방산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인도네시아 LNG 플랜트 배관공사 수주

대우건설은 인도네시아 땅구 LNG 액화 플랜트 가운데 일부 배관공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사업은 인도네시아 서부빠뿌아 주 빈뚜니 만 지역에 위치한 땅구 LNG 트레인3 액화 플랜트 공사 중 콜드 섹션(천연가스를 액화 형태로 변환시키는 핵심 공정)의 고난도 배관공사다. 공사 금액은 5천만 달러(약 616억원) 규모다.

땅구 LNG 트레인3 사업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원청사 '사이팜'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대우건설에 긴급 시공을 요청해 계약이 성사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도네



▲ 인도네시아 땅구 LNG 트레인3 전경 [대우건설 제공]

시아에서 LNG 플랜트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시장 개척을 추진해 온 것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도서출판/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Covid-19 극복을 위한 4억원 규모 방역물품 기증



▲ 4월29일 현대엔지니어링은 빠르따메디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왼쪽부터 현대엔지니어링 양광혁 부장, Dr. Fathema Djan Rachmat (President Director of Pertamina), Arya Dwi Paramita (Pertamina Vice President of CSR & SMEPP)(사진=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지사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빠르따메디카(Pertamedika: 국영정유회사 PT.Pertamina 산하 의료기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및 방역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진행된 기증품 전달 행사는 자카르타 내 Covid-19 임시진료소로 사용되고 있는 빠트라 콤포트 자카르타 호텔(Patra Comfort Jakarta Hotel)에서 개최되었으며, 사회

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 및 빠르따미나(Pertamina)의 소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전체 기증물품은 진단키트 4천800개, 방역마스크 25만 개를 포함한 약 4억원 규모로, 1차 물량은 금번 빠르따메디카에 기증되었으며, 잔여 2차 물량은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BNPB)에 기증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기증한 방역 물품은 한국에서 생산

되어 인도네시아로 전달됐으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기증 행사에 참석한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는 Covid-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금번 방역물품 기증을 통해 방역물품이 부족한 인도네시아의 의료 당국에 도움이 되어 팬데믹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대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공헌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방역물품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30년 전 인도네시아에 첫 진출 이후 2019년 인도네시아 역사상 단일 규모로 최대 프로젝트인 ‘발릭파판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

“LG전자 구미 TV공장 인도네시아 이전” 직원 면담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 주장... LG전자 “결정된 바 없다”



LG전자 구미사업장의 TV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구미경실련이 7일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LG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 TV부문 생산라인 4개 반 중 3개를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올레드 TV·LCD TV·컴퓨터용 모니터를 조립·생산하는 A3 공장의 3개 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구미사업장에서는 대형터치모니터만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V부문의 정규직

인력 480여명 중 380여명은 경기도 평택으로 이동하거나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고 했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LG전자 직원을 통해 평택 이동 또는 명예퇴직을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LG전자까지 빠져나가면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LG전자 해외이전설이 흘러나왔다”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해외이전설이 사실이라면 시민이 LG 사랑운동으로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이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LG전자 TV부문이 해외로 이전하면 하청업체 직원 수천 명 중 일부도 인도네시아 또는 평택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연합뉴스] LG전자 구미사업장의 올레드TV 품질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악의 경우 인니 빈곤층 전국민의 14.35%에 이를 전망”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민 14.35%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CORE)는 4일, 최악의 경우 2분기에 빈곤층이 최소 510만명에서 최대 1230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콤포스 등에 따르면 CORE의 아흐마드 수삼포 경제학자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빈곤층이 1230만명이 추가된다면 총 3,790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는 전국민의 14.35%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더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흐마드 수삼포 경제학자는 이어 “정부는 빈곤층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한다. 보조금, 사회지원금 등을 확대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1분기 경제성장률은 2.97%로 전년 동기의 5.07%에서 크게 하락했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 Leading Logistic Provider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주춤 ... “인프라 예산, 코로나 대응에 전용”



▲ 인도네시아 신수도 조감도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깔리만판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오는 7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법

안과 공사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 중이었으나 인프라 예산 상당 부분을 코로나 사태 대응에 전용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24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도 이전 예산 투입이 보류됐지만, 내년에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공사업주택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된 대부분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전용하기로 했다”며 “신수도 건설 지출을 포함한 인프라 예산을 병원 개선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 2021년 예산에 관련 자금을 할당하길 원하는지 여쭙었으나, 현재 상황에 비춰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답하셨다”며 “만약(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경기 회복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꼬위 대통령은 앞서 올해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을 코로나19 대응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5.0% 이상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2.3%로 하락하고, 더 심하면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부터 달러당 루피아 가치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게 하락하고, 실직자와 빈곤층이 급증하자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는 이달 17일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비용은 대략 337억 달러(41조 원)로 추산되며, 정부는 2024년 1단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36조4천억 원)~400억 달러(48조5천억 원) 투자 의사를 밝혔고,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도 관심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수도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도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印尼 물류업,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50% 감소



의 수요가 늘면서 BtoC(기업 대 개인 거래)·CtoC(개인 간 거래)는 매출이 늘었지만, BtoB(기업 간 거래)의 침체를 보완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식품, 농산물, 의약품의 매출은 3월부터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예년에는 라마단(이슬람 금식 월) 기간 동안 물동량이 평소보다 30~50% 증가하지만, 올해는 해고나 종교대제수당(THR) 감소 등으로 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년 대비 40%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LI 관계자는 2021년 1분기(1~3월)까지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때까지 물류 업체들은 사업 디지털화와 BtoC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으로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물류 업계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물류협회(ALI)의 보고를 바탕으로 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지난 달 28일 전했다.

ALI 관계자에 따르면, 물동량은 3월 초부터 60~70%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 규제 등 긴급 조치를 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관계자는 “외출 자제 등으로 식품, 농산물, 의약품

국영 건설 후따마 까르야, 신수도의 발랑섬 대교 건설 공사진행률 77%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후따마 까르야(PT Hutama Karya)는 4일 신수도 이전 지역인 동부 깔리만판주에 진행 중인 ‘발랑섬 대교’ 건설 공사진행률이 76.5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교는 발릭빠판과 빠나

잠 빠사르 우따라를 연결한다.

완공되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대교가 된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후따마 까르야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지만, 목표대로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 현장 책임자에 따르면, 교량의 기둥 공사는 95% 완공됐다.

당초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작년 12월 바수끼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이

현장을 시찰해 2020년 말로 완공일자를 앞당겼다. 공사 현장 책임자는 “코로나19 보건수칙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목표 일자에 맞춰 완공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발랑섬 대교가 완공되면 발릭빠판 남쪽에서 빠나잠 빠사르 북부까지 현재 5시간이 소요되는 1시간으로 단축된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는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와 마두라섬을 연결하는 마두 대교이다.

PT. KUMGANG INTERNATIONAL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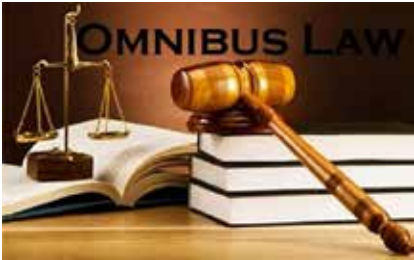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방화문 & 패션도어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경제계 “일자리창출 옴니버스 법안 심의 연기하면 투자환경 후퇴할 것”



최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의회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심의를 연기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 관련 규정이 빠진 옴니버스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바람직한 투자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4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성명은 특히 옴니버스법안에서 노동 관련 규정이 없어진다면 ▽ 노동 집약형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고용 창출 기회 감소, ▽ 노동 집약형 산업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약화, ▽ 비정규직 채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2020년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및 자택 대기 중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경기 회복 후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안의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경영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Apindo의 밥 부회장은 “사업 환경을 개선해 해고 조치를 줄여 나가야 한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4월 초에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7만 4,439개 기업에서 정규·비정규 직원 약 120만명이 자택 대기 또는 해고됐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신타 부회장(국제 관계 담당)도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및 노동법 개혁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안 심의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복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안’ 중 일자리 창출 법안은 해고 수당 상향선 재설정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조가 강력히 반대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위를 중단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 대변인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되며, 기업측은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노동규제를 완화한 곳에 투자가 늘어날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안은 시민과 노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재무부장관령 44호 (PMK No.44 / Tahun 2020)

인니 정부는 코로나 19관련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공표한 재무부 장관령 23호 (No.23/PMK.03/2020) 을 폐지하고 재무부 장관령 44호를 새로 발표하였다.

개정된 재무부 장관령 44호는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해당 업종분류코드가 크게 확대되었고, 보세 구역 허가 기업도 추가되었다. 또한 년매출액 48억루피아 이하 영세기업에 부과되었던 PPh4(2) 도 추가되었다. PPh21 경우 440 업종에서 1,062 업종 확대되었고, PPh22와 PPN의 경우에도 102개 업종에서 431개 업종으로, PPh25의 경우 102개 업종에서 84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A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또는 보세구역허가(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izin PDKB)를 득한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납세등록(NPWP)을 하였고, 연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 4월 과세분부터 2020년 9월 과세분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동 재무부장관령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세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5 영업일 이내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정부령 PP No. 23 /2018 세제 혜택 (Insentif PPh Final Perdasarkan PP No.23/2018)

정부령 23호 요건을 충족한 영세사업자(연매출액 48억루피아 이하)의 경우 종전 매출액의 0.5%의 최종분리과세에 대해 4월과세분부터 9월까지 면제 혜택 부여. 납세자는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I 에 해당되는 업종, KITE로



김재훈 대표

지정된 회사 및 타국으로 재화 반출하는 보세 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 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하여 면제승인으로 부터 9월 과세분까지 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KLU Lapmiran huruf N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보세 구역 허가를 득한회사에 해당되는 납세자 대상으로 동 재무부장관령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5영업일 이내 요건 미충족시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액의 30% 를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I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로 지정된 회사, 보세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없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구멍조끼,수영보드,헬멧 및 장갑,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 toilon.co.id



코로나 사태 지나면 전세계 경기부양책 '올인' ... 돌아올 '수주 잭팟' 대비해야

美·유럽 등 인프라 투자 확대 하반기 이후 회복세 전망 우세

수주 재개로 매출 증가 기대 코로나19와 유가급락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하고 주요국 현장마다 '셧다운'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위기 후 찾아올 기회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 종식 시점이나 그 경제적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세계 각국이 인프라 중심의 슈퍼 경기부양을 예고하면서 해외건설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7일 건설 및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월 해외수주가 연초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면 유가반등과 해외수주 재개, 그룹의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수주 및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유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현 시점에서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분위기를 가늠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부진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계약을 앞둔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올해 성과는 작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급락한 건설업종 주가도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면서 대형건설사의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건설업계는 현재로서는 신규 수주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공사중단이나 공기지

연, 미수금 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입을 모았다. 희망적인 관점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계 각국이 마련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는 눈을 떴지 못하고 있다.

국가마다 성장을 회복과 일 자리를 위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슈퍼'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나선 만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이미 3차에 걸쳐 총 2조1083억달러(257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한데 이어, 최대 2조달러 규모의 추가 인프라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법안 통과를 주문하며 과감한 인프라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뒤늦게 비상사태 선포를 공식화한 일본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두배에 달하는 108조엔(약 12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에 나선다. 아직 인프라투자 규모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당액의 건설투자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국도 이미 수천억 달러의 추경을 편성하고 인프라를 포함한 추가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각각 1000억~4000억 달러의 부양책을 동원할 예정이고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각각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내놨다.

국내 업계의 해외수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

남아와 중동, 남미 등에서도 인프라 중심의 경기부양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당장은 방역과 내수진작을 위한 현금지원 등이 많지만, 조만간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동반한 대책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아직은 안전과 수익성 등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조심스럽게나마 현장인력이나 네트워크를 동원해 위기 후 시장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 빠른 건설사들은 이미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계획 수집 및 발주자 관리에 나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와 유가폭락은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이었지만, 예견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면서 "입국제한 해제 등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신규수주나 개발참여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KIND, 에너지공단과 해외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개발 추진

사업협력 협약(MOU) 체결... 해외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



▲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좌) 사장과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KEA) 이사장은 24일 KIND 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및 투자 등에 관한 사업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한국에너지공단(KEA)은 24일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 개발·투자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KEA가 보유한 해외네트워크 및 사업 발굴 역량과 KIND의 사업개발 및 직접투자 기능을 활용해 해외 신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추진하고 기술 및 정보, 인력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KIND는 이미 칠레 태양광발

전사업 2건에 대한 투자를 확정하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KEA도 '신재생 해외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 '해외시장 진출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허경구 KIND 사장은 이날 "기후변화대응이 중시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KIND도 이 분야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본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서로 연계하여 기업들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코로나19 신속대응팀,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BLC 구축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BLC, Bersatu Lawan Covid-19)을 구축했다고 밝

혔다.

현지 언론 콤포스 4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속대응팀과 군, 경찰, 재난방재청, 국가정보부, 정보통신부 등과 협력으로 구축한 BLC는 전국 병원과 보건소, 실험실, 보건청 등의 정보를 통합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의 도니 팀장은 "코로나19 관련 공식홈페이지(covid19.go.id)에서 코로나19 현황 및 정보를 공개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할 것"이라고 말하며 "핸드폰에서 BLC 앱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SNI 인증

IKF PT. INKO FAZZA TRADING

한국에서 직 수입한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부합니다!

안전모는 세계최고 한국 안전모로

Jl. Palembang Raya Ruko Barcelona No. 52
Panunggangan Barat - Cibodas, Tangerang Banten

Telp : (62-21) 5572-7726
Mobile : 62 878-8754-7292
Email : inkofazzatrading@gmail.com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포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코로나19에 무너지는 해외프로젝트 '줍줍' 도 대안

저유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너지는 해외 프로젝트가 늘어날 경우, KIND가 지분투자를 통해 인프라 세컨더리 마켓(기존 투자된 지분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유가 하락 압력이 지속하는 가운데 원유시장의 선물 만기가 겹치면서 기록적인 낙폭으로 이어졌다.

계속되는 저유가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발주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해외 프로젝트들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노동인력 수급 부족까지 겪고 있어 신규 발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규 발주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에서의 사업주·시공사 변경 및 사업구조 변화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중 본격화할 것

이란 전망이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 중단이 길어지면 금융비용을 포함한 각종 사업비용이 늘어나게 돼 차주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자본력이나 신용이 부족한 사업주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본금을 태울 수 있는 사업주를 모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구주를 인수하거나 기존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주체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KIND가 이 같은 역할에 적임이라는 평가다. KIND는 기존 국내 해외건설 수주지원 조직과 달리 직접 지분투자가 가능하다. 해외 사업주가 포기한 사업에 KIND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국내 건설사 대신 KIND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 프로젝트에서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KIND가 구주 지분을 인수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국내 시공사 입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아마존의 서비스 정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더니 책도 서점도 없이 책을 팔아먹은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새 책은 물론 헌책도 사고 팔 수 있어서 줄도 굶지 않은 비싼 원서를 싸게 사고는 나의 정보력에 허족허족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남 먼저, 킨들(kindle)이라는 것으로 e-Book을 보게 하고 팔아먹는다. 읽어주기도 하니 종이보다 장점이 많아서 너무 많다. 인공지능을 입힌 ‘알렉사’ 디바이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다. 이제 아마존은 책보다는 백화(百貨)를 파는 가게로 바뀐 지 오래다. 가격과 과외와 신속 배달을 내거는 온라인 샵은 소비자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몇이나 돈을 벌고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2006년에 아마존은 웹 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를 시작했다. 웹과 서비스는 아는 말이지만 ‘웹서비스’는 무슨 말이지? 웹으로 무언가 서비스를 하는 것 같기는 하다. 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 한다는 것인가? 서비스를 덤이나 공짜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무슨 이득을 본다는 걸까 하는 의문을 해 볼 수 있다. 돈을 벌기위해 사람들을 모아서 재료를 사고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어다 파는 회사(會社)는 비용은 줄이고 이익은 많이 내어야 하기 때문에 온갖 공리를 다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말기 쉬워 스마트이지 스마트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컴퓨터를 켜면 기업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려고 전사적 자원관리(ERP)라는 패키지가 나와 이를 이용하지 오래되었다. 주문과 생산을 연계하려면 재고를 파악해서 필요한 재료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제조설비에서 생산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면 관리자는 재료와 제품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수주

와 납품을 관리할 수 있다. 생산설비의 오류나 불량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게 되고. 단지 ERP라는 프로그램을 쓴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 패키지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소위 서비스형 프로그램(SaaS)이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외주를 한다. 주 업무가 아닌 상당부분은 소위 용역(用役)을 이용한다. 용역이란 서비스를 말한다. 외주란 아웃소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회사에서 이용하는 외주는 식당, 경비, 청소 등의 일에서부터 더 전문화된 분야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회사는 제품의 여러 가지 부품을 제각기 다른 회사로부터 받아 조립한다. 분업이라는 외주의 전형이고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쓰지만 전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를 외부로부터 해결하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웹 서비스다. 이를 간파한 아마존이 먼저 치고 나섰던 것이다. 마치 병원에 가면 살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오는 것처럼, 의사들이 진단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전 과정을 서비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그것도 부담 없는 비용으로.... 기업에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팔고 관리를 해 주던 업자들이 업무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적절한 처방을 해 주고 나아가 정보자원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섰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정보기술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투자비용과 관리비, 인건비도 많이 들게 된다. 데이터의 백업, 재해 복구, 이메일, 가상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빅 데이터 분석, 고객 대상의 웹 애플리케이션 이



조기조 박사

등은 자체 개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정보자원 서비스를 하던 대부분의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나선 것이다. 메신저의 왕자, 카카오톡도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다. 카톡으로 이용자들을 충분히 확보하자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한 것이다. 포털을 개설하였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커머스, 게임, 핀테크, 소셜 임팩트 및 모빌리티와 라이프 분야로 나누어 30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또, 클라우드 시장이 늘어나자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MSP)들도 생겨났다. 이들 MSP는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은 물론 사후 서비스까지 클라우드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는 매개체다. 기존의 IT 시장에서 컨설팅, 유통, SI(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 업체들이 했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는 공짜? 쪼끄의 비용을 들이고도 엄청난 효과를 본다면 그것이 바로 서비스다. 서비스는 도처에 있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월드컵경기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중국 심양 롯데월드
리비아 트리폴리 JW 메리어트 호텔 / 인도네시아 잠신 나이키공장
인도네시아 태평양 워노기리 봉재공장단지 / 이화여대 서울병원 및 의과대학
폴란드 및 멕시코 만도 공장 / 베트남 롯데몰 하노이 /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스타필드 하남 / 말레이시아 아모레퍼시픽 공장 / 베트남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중국 정도 세브란스병원 **외국내의 다수 실적 보유**



JUNG L I M | INDONESIA
#506 Tower 2, Synthesis Square,
Jln. Gatot Subroto Kav. 64, No. 177A South Jakarta
Mobile +62 (0)852 1561 9583 / E-mail global@junglim.com
www.junglim.com

차별화된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

건축 설계

건설사업관리(CM/PM)

1967년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출발한 정림건축은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4,7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2017년 영국 BD가 선정한 대한민국 1위 글로벌 건축회사입니다.

주요 설계 분야
복합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R&D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코로나로 폭락했던 루피아 강세 회복



루피아화는 지난 목요일 미국의 코로나-19 백신개발 가능성, 경제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의 금리동결 약속에 힘입어 달러 대비 3퍼센트 가까이 절상되면서 3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루피아화는 전세계적 코로나 위기를 맞아 달러당 Rp16,625까지 떨어졌다가 목요일 4시 46분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Rp14,881을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은행간 스왑환율(JISDOR)도 수요일 Rp15,415에서 목요일엔 Rp15,157로 올랐다.

중앙은행장 페리 와르지오는 목요일 금융담당 국회 11 소위원회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단기금리 동결할 것이며 루피아화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2월과 3월 50개의 기준점들을 검토한 후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4.5%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빠르마파 은행 이코노미스트 조슈아 빠르데테는 지난 금요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루피아 절상은 미연방 준비국이 지난 수요일 금리를 0~0.25%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받은 것이며 바이오기술기업 길리드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임상실험

에서 50% 성공율을 보여 순조롭다고 발표한 것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수요일 길리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렌더서버의 실험은 초기 실험에서 환자회복에 기여했음이 확인되어 코로나-19 치료 표준이 될 것이라는 미국의 한 감염병 권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같은 날 연방정부 관료는 경제부양을 위해 모든 방법을 쓸 것과 미국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금리를 0% 가까이 묶어둘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페리는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적어져 루피아 절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 전문가는 당초 중앙은행이 2.5~3%로 예측한 경상수지적자 1/4분기엔 1.5% 밀로 나타나 연간으로 2%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월등한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익율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페리는 덧붙였다.

5월초까지 중앙은행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 양적완화의 일환으로 루피아 가치 부양을 위해 금융시스템에 추가 유동성 제공

입환으로 503.8조 루피아를 수혈한다.

자카르타 종합지표(JCI)는 화요일 국영 만다리은행, 에너지기업 메드코 에너지, 국영 고속도로관리사 PT. 자사마르가 등과 같은 블루칩 주식들의 선전과 함께 3.26% 증가했다. 외국투자자가 매수는 매도보다 431조 루피아(dr 287억 달러)가 많았다.

그러나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4월 23일에만 외국투자자들은 159.6조 루피아 상당의 채권과 주식 중앙은행표시증서를 매도했다.

정부는 3월말까지 221.4조 루피아의 정부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외에 43억 달러 상당의 채권이 미국에서 판매되었고 지난 수요일 그린슈 옵션 채권경매에서 채권 11.38조 루피아를 팔았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2분기부터 연말까지 정부가 856.8조 루피아의 채권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코로나19 대책 비용 국채로 40억 달러 조달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발행으로 40억 5,0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8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또한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총 7억 5,0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 국채과 관계자에 따르면, 3종류의 채권을 발행했다. 구매자는 시중 은행과 샤리아(이슬람율법) 은행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달 결정한 지급 준비율 인하로 자금 유동성이 커지는 은행에 국채 보유 비율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한 이슬람개발은행(IDB)으로부터 2억~2억 5,000만 달러를 대출받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세계은행



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각각 2억 5,000만 달러를 조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책의 비용을 충당하기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내 최초로 50년 만기 국채를 포함한 3종류의 미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액면가는 총 43억 달러다. 그 후, 샤리아 국채(수쿠크) 발행으로도 14조 루피아를 조달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23일, 인도네시아에 15억 달러를 융자한다고 발표했다.

바빔의 투자실현액, 1Q는 연중 목표의 53%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주 바빔 자유 무역 지역의 운영과 개발 정책을 주도하는 BP 바빔(바빔자유구역감독청, BIFZA)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의 바빔 섬의 투자실현액은 4억 7,306만 달러로 연중 목표의 약 53%에 달했다.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투자실현액에 나타날 전망이다.

투자실현액은 인도네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등 기업의 신규 투자가 총 4억 7,254만 달러였으며, 싱가포르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52만 2,000달러였다.

BP 바빔 관계자는 "1분기 투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결정됐던 것"이라며 "2분기(4~6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중 투자실현액을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 리아우제도주 지부에 따르면, 바빔 섬의 제조업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 국내 활동 제한령에 따른 원료 공급 중단, 외국의 봉쇄에 의한 수출 중단,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여러 회사가 생산 축소 및 직원의 일시 귀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JOUN DOOR

Flooring, Skirting

DS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sialis

Furniture DONGSEO
동 서 가 구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
- + Deco Sheet
- + HPL
- + LPM
- + Duco
- + Veneer

- FURNITURE
- INTERIOR MATERIAL
- FLOORING
- SKIRTING

자카르타 주지사 “상황 개선되면 2주 후 PSBB 해제 가능성도”



▲ 인니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멈춰 세운 뒤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있다.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준 봉쇄조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을 2주 후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9일자 현지 인베스터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아니스 주지사는 앞서 지난 달 22일 PSBB를 이달 22일까지 약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감시대상환자(PDP)나 (주 내 1일 당) 사망자 등이 계속 감소할 경우 PSBB를 해제한다”고 말

했다.

자카르타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주의 신규 감염자 수는 83명으로 전날보다 35명 감소했다. 이날 사망자는 2명, 회복한 사람은 7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진단 키트 부족으로 다른 나라보

다 검사가 더디게 진행돼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니스 주지사는 PSBB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88%, 자가용이 54%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영 항만 운영사 빨린도3, 4개 대형 개발 사업 계속

인도네시아 국영 항만 운영사 빨라부한 인도네시아3(PT Pelabuhan Indonesia3, 빨린도3)은 4일 발리 남부 베노아 항에서 추진하는 여객선 터미널 발리 해양관광 허브(BMTH) 건설 사업 등 4개의 대형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지 대책도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3건은 서부 누사똥가라주 툼복의 길리마스(Gilimas) 항구의 여객선 터미널 건설 사업, 동부 누사똥가라주 플로레스 라부안바조 다목적 터미널 건설 사업,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 · 판중 빼락 항구의 라몽 다목적 터미널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사업이다.

빨린도3 관계자는 “건설한

에너지광물자원부, 건설 단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 중단... 내년에 재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과 물류 이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건설 단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건설을 중단하고 내년에 다시 재개할 방침



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건설이 중지되는 사업은 동부 누사똥가라주 플로레스의 지열발전소와 북부 수마프라의 지열발전소, 누사똥가라 지역의 수력발전소 등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총국(EBTKE)의 하리안포 에너지 국장은 “올해 예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입찰은 예정대로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부양책으로 사업자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및 발전소의 상업 운전 일수 조건 완화, 부가가치세(VAT)와 소득세 면제, 바이오 연료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PT. SEPULUH SUMBER ANUGERAH 새 가족을 찾습니다.

구분	내용
업종	건설업
구인인원	1. 토목 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2. 건축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3. 플랜트 배관 프로젝트 매니저 :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4. 기계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주요업무내용	각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발주자, 사업관리자, 건설 사업자, 설계/감리자 사이의 정보 흐름 관리 및 경영
우대사항	- 대졸이상 - 50 세 미 만 - 건설사 경력 5 년 이상 - 인니어, 영어 능통자 - 인니 건설현장 유경험자 우대 - 토목, 건축, 플랜트 배관, 기계 관련 현장 경험 있는 자 우대
제출서류 및 선발절차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전 근무지별 담당업무 및 실적) - 1 차 - 서류, 2 차 - 면접, 3 차 - 대표이사 면접 * 서류제출 및 문의 IBRAHIM HWANG (Tel : 0811100937) E-mail: ibrahim-hwang@pt-ssa.co.id

세금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세금문제(부가세 환급, 세금 경감) 대행

비밀 보장과 깔끔한 마무리 해드립니다!

Servicio
Tax

PT. JOAKIM INDONESIA CONSULTING
Menara Jamsostek Tower N Lt.3, Jl.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상담문의 : 0813-1761-9876 (사무장)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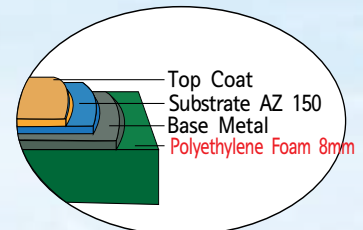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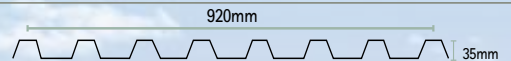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코로나19 팬더믹 속 조용한 라마단

올해 라마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다.

라마단은 이슬람력 9월로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단식하는 기간으로 동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은 물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다.

평소에 무슬림들은 해가 진 뒤 가족이나 지인들과 모여서 부카뿌아사(Buka puasa) 또는 이프타르(iftar)라 부르는 저녁식사를 하고, 이슬람사원에서 합동기도를 드린다. 거리에는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야시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밤새 어울려 다니며 한달 내내 축제를 즐긴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기도 소리를 알리는 이슬람사원의 스피커 불음이 한껏 커진다. 새벽기도 전에 아침을 먹고 저녁기도 후에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 간은 부카뿌아사를 학교 동창회나 회사 단합대회 또는 단체모임 등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어서 외부 레스토랑에서 화려하게 즐겼다.

하지만 올해는 이슬람사원의 스피커 소리가 작아졌고,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으로 모든 식당이 매장 영업을 중단해 외부에서 하는 부카뿌아사 모임이 없어졌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5명 이상 모이는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따라 라위 기도회도 사원관계자와 소수의 신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밤새 물려다니던 사람들도 없어져 여느 해보다 조용한 라마단이 됐다.

땅그랑 지역에서 일하는 미라(37) 씨는 식료품 가격이 올랐지만 예년보다는 상승폭이 작고, 동네 상점에 진열된 선물세트도 소박해졌다며, 가족들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부카뿌아사를

한다. 그는 따라위 기도회도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무슬림들에게 단식월에 집에 머물고 외부 모임을 취소하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돌피트리 귀성(mudik)을 금지했다.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슬림 가운데 24%만 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성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코로나19는 라마단 풍경을 바꾸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24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됐지만 익숙한 풍경들은 보이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집에서 식사하면서 가족의 결속력이 더 강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내 소핑몰이 문을 닫고 관공서와 기업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각급 학교가 방학을 함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증가했다.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증가한다고 묘사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4월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해서 170만 명이 해고됐고, 해고와 무급휴가로 소득이 끊긴 사람은 총 200만 명에 이르며,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가동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 상황이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멜리아 소피안(27, 사무직 종사자, 중부자카르타 뼈뎀부란)은 지난 1주일 동안 점심시간에 오젝기사와 와룽(간이식당) 주인들에게 도시락과 생필품이 든

봉투를 나눠주었다.

아멜리아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매일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오젝기사, 와룽 주인, 청소부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마리아나 짜야닝시(33세, 중부자바 부미아유, 개인사업자)는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기부했다. “지난 수일 간 도시락 60개를 기부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라뜨리(23세, 사무직 종사자, 자카르타)는 친구들과 땅그랑 지역 빈민촌에 매주 음식꾸러미 50개 이상을 보낸다. “공감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정부에 화를 내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낸다. 하지만 모두가 집에서 일하거나 머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모하맛 하피디(10세, 서부자바 반둥)는 돼지저금통에 매일 1000루피아씩 9개월 간 모은 돈 45만 루피아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위해 써달라고 지난 4월16일 반둥 다유플룻 경찰서에 기부했고, 경찰서는 이 돈을 서부자바 코로나19 대응팀에 전달했다.

자카르타 패션 스튜디오 Ai' telier의 공동창업자 카를린 웨리아나는 다음 시즌 패션쇼 준비를 포기하고 의료진을 위한 진료복을 만들어서 4월 초에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동부누사라 등 산재한 병원 12개에 기부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 올해 공단 목표 판매 전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는 올해 공단 용지의 판매 면적은 전년 실적과 비슷한 365헥타르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연초에 전년 대비 20% 증가 목표를 설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용지 판매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HKI 쉐니 회장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된 3월 초부터 토지 판매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1분기(1~3월) 판매 면적은 집계 중을 이유

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 모델 바켄랜드 리얼티의 자회사 모데룬 인터스트리얼 에스테이트는 1분기에 공업 용지 20.8헥타르를 판매했다. 2분기(4~6월) 판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체될 전망이다. 하반기(7~12월)에는 국내외 기업의 수요 회복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영 건설 아디 까르야, 코로나19 확산 방지책 준수하며 LRT 공사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아디 까르야(PT Adhi Kary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르면서, 자카르타 수도권 등에서 경전철(LRT) 건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지 언론 안파라누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디 까르야의 위스만 위도도 철도부장은 “교통부 관리팀과 연락을 긴밀하게 취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

중앙정부 교통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스만 철도부장은 특히 현장에서 작업자끼리 충분한 간격을 두며 작업하기 등을 강조했다. 현장 외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LRT 건설사업은 동부 자카르타 짜왕을 기점으로 남쪽으로는 서부 자바 짜부부르, 서쪽으로는 두꾸아파스, 동쪽으로는 브카시 등 총 3개 구간을 연장한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17일 기준 각각 88%, 67%, 64%에 달하고 있다.

소리 항공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 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iair.co.kr

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

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

“코로나19 이후 새 문명 출현급 변화” ...대응 서둘러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명 출현에 버금갈 정도로 급변할 것이라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7일 ‘코로나19 이후 부산 시민 행복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큰 변화를 비대면 접촉 증대, 공동체 의식 약화, 세계화 위기와 지역화 강화, 빅데이터의 활

부산연구원 보고서...산업체계 정비·공공 콘텐츠 개발 등 제안 K-방역 활용 위해 동아시아질병통제관리센터 부산 설립 나서야

보고서 책임연구위원인 오재환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핵심 이슈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언택트(비대면) 소비 확장, 건강한 공공의료 추구, 자발적 고립과 격차 심화, 재난 공동체로 정리했다.

화 등을 예상했다. 둘째 홀족(Home 族) 문화, ‘집콕’ 일상화, 건강 추구형 관광의 부상을 예측하며 온라인 문화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셋째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화

넷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자발적인 고립의 증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증가, 스마트 행정복지 수요 확대를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격차 심화와 가짜정보에 의한 공포심 확산 등 부정적인 영향도 늘어

오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는 분야별 과제를 정리해 부산시에 제안했다. 먼저 지역 산업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 기반과 신서비스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문화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동도서관 스마트 콘텐츠 제공 확대, 온라인 공연전시 확



▲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경고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코로나19 100일 앞두고 소강상태...2차 유행 대비 (CG)



▲ 코로나19 영향 경제성장률 하락 (PG)[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용과 ‘빅 브라더’ 사회 출현, 국가 권한 강화와 분권의 약화, 개인주의 증가와 집합 주의의 쇠락으로 요약했다. 기술과 감성 우위 사회, 사회적 거리 강화와 심리적 거리의 확대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를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경제구조변화에서는 언택트 소비로 대변되는 온라인 소비 확대, 인공지능·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실현 가시화, 생산기지 이전 등 공급체계 변

로 공간계획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스널 이동성의 확산, 비접촉문화의 확대에 따른 재택근무와 스마트 워크 증가, 접촉 완충 공간 요구 등이 늘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째 건강·위생용품 수요 급증과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공공 보건의로 시스템 강화,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제 사회 공조와 협력, 연대 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 사회적 거리 두기 축제 개발, 공공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개발 및 지원 등도 제시했다. 스마트 워크에 대비한 공간 계획 마련과 비대면 시민 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 친환경·항바 이러스성 소재 공공 건축 공간 설계 등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건협, AIB와 ‘코로나 위기대응기금 세미나’ 온라인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장소와 참석자의 제약이 없는 웨비나(Webinar, Web+Seminar) 방식으로 개최했다. AIB의 ‘코로나19 위기대응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는 AIB 회원국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기대응기금이다. 향후 18개월 동안 총 50~1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

이며, 특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정창구 해건협 정책지원센터장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AIB에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금이 설립되어 이를 전파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을 통해서 회원사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건설경제

PSBB 실시 중인 국도, 통행량 최대 90% 감소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는 지난 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책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실시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주 국도에서 24~25일에 측정된 통행량이 실시 전에 비해 최대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를 실시한 국도는 자바섬에서는 반뜰주와 서부 자바주 각 4곳, 동부 자바주와 족자카르타특별주 각 5곳, 중부

자바주 8곳이다. 리아우주는 5곳, 남부 술라웨시주는 10곳이었다. 교통량의 감소폭은 7개 주 평균 68%였다. 가장 감소폭이 컸던 국도는 동부 자바의 응안죽-키프르토소노(Nganjuk - Kertosono) 간 통행량으로 89% 감소했다. 가장 감소폭이 작았던 곳은 서부 자바주 수방 경계에서 빠마누간시 경계까지의 구간으로 33% 감소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난 안전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 “‘K-방역’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만큼 부산시가 아세안 도시 간 방역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에 동북아 공동 방역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가칭 ‘동아시아 질병 통제관리센터’를 설립해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천년을 넘어선
첨성대는
민족의 자긍심이다.
선조의 지혜와 기술을
고스란히 이어
인도네시아에
우리 건설기업의 열을
되새긴다.

<http://www.pt-ssa.co.id/>

신뢰와 기술! 전통과 경험!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Head Office & Workshop
Jl. Raya Jakarta Serang KM 68 Kaw. Modern Industri Kav. 6 Cikande, Serang - Indonesia
Tel. (+62) 254 4029 47-49
Fax. (+62) 254 4029 51

Jakarta Office
Equity Tower Lt. 10-D Sudirman Central Busines District Lot 9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Indonesia 12190
Tel. (+62) 21 5151 604
Tel. (+62) 21 5155 687